

#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고찰

장 원 석\*

— 目 次 —

1. 서
2.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고찰
3. 통속적 유물론 비판
4. 주관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5. 맺는말

## 1. 서

이 글의 목적은 세기철학의 전통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M. Merleau-Ponty를 중심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1930년대 초 꼬제브(A. Kojève)의 헤겔강의에서 비롯되는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는 戰後 실존주의 논쟁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sup>1)</sup> 논쟁 주역의 한 사람 이었던 Merleau-Ponty는 意識의 문제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려는 입장을 서구마르크스주의라 부르고 이것을 정통적인 경제적 결정론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Merleau-Ponty는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Sartre에 이르러 극단적인 경향에 빠졌다고 본다. Sartre는 객관적 세계를 무시하고 의식의 절대적 자유에 의존함으로써 의식만으로는 세계변혁을 기도

---

\* 師範大學 國民倫理教育科 講師

1) 이점에 관해서는 G. Lichteim, *Marxism in Modern France*(N.Y.: Columbia. univ, 1969), PP. 84-101 참조.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erleau-Ponty는 Sartre의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통철학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철학을 전개하게 되었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역사란 객관적 상황에 인간의 의식이 개입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며 어느 한편을 다른 한편으로 환원시키는 유물론이나 관념론은 모두가 일면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하부구조와 인간의식간의 변증법적 관계속에서 주어진 여건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극복하려는 태도를 마르크스가 말하는 프락시스(Praxis)의 참의미로 파악하고,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우리 시대의 역사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을 母體내에서 진행중인 태아의 생성과정에서 비유하고, 그러나 순산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라 함으로써<sup>4)</sup> 경제적 결정론에 입각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와 객관적 여건을 무시하는 의식 일면도의 주관주의적 접근을 모두 거부하였다.

## 2.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고찰

Merleau-Ponty는 프랑스적인 시각에서 근대 서구의 정신사를 합리주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17, 18C의 이성만능을 주장하였던 주관적 합리주의와 19C말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추구하고 있던 실증주의로 대별된다.<sup>1)</sup> 전

2) M. Merleau-Ponty, *Adventures of the Dialectic*, trans. J. Bien (Evanston; Northwestern Univ, 1973) P. 64 이하 AD로 略한다.

3) M. Merleau-Ponty, *Humanism and Terror*, trans. J. O'Neill (Boston; Beacon, 1969) P. 113.

4) M. Merleau-Ponty, *Sense and Nonsense*, trans. H.L. Drefus & P. A. Drefus (Evanston; Northwestern Univ, 1964), P. 81. 이하 SNS로 略한다.

1) M. Merleau-Ponty는 전자를 major rationalism 후자를 minor rationalism으로 본다.

M. Merleau-Ponty, *Signs*, trans. Richard Mcleary (Evanston; Northwestern Univ, 1964) PP. 147~148. 이하 S로 略한다.

자의 전형은 데카르트 철학에서, 후자는 S-R 모델에 입각한 근대심리학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합리주의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자는 인간을 관념적으로만 取하고 후자는 인간을 수동적 도구로만 바라봄으로써 양자 모두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Merleau-Ponty는 본다. 20 C의 양차대전에 의한 파국은 이러한 합리주의 정신의 허구를 노정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금세기는 비합리적인 것들의 실루엣으로 시종 일관 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Merleau-Ponty는 합리주의 철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의 비극을 허용할 수 있는 또다른 철학의 계열을 헤겔, 마르크스, 니체, 훗설등에서 발견하고 이들의 철학 정신을 합리주의 전통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그의 실존적 현상학 (existential phenomenology) 이다. Merleau-Ponty는 특히 후기 훗설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 의존하여<sup>3)</sup> 지각이론과 역사인식을 전개하고 의식과세계를 어느 한편으로 환원시킴 없이 양자를 동시에 포섭하는 새로운 철학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실존적 현상학은 진리의 기반을 생활세계에 둠으로써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과학의 객관성과 주관주의가 주장하는 의식의 명증성에 대해 모두 한계를 부여한다. 생활세계의 개념은 객관성의 근거로서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의식을 세계속에 연루시킴으로써 의식의 절대적 자유를 부정한다. 과학의 법칙이나 의식의 사고작용은 생활세계에 근거하고 있는 지각의 2 차적 질서이거나 혹은 승화작용에 불과하다. 생활세계론은 그것이 함축하는 상대주의적 논리를 통하여 주관과 객관, 의식과 세계, 철학과 과학의 이분적 도식화를 제거하고 밀접한 상호연관성 위에서 양자를 종합하는 제 3의 길을 제공한다. Merleau-Ponty는 생활세계에 분석의 초점을 둠으로써 진리의 기원을 보다 현실에 접근시키고 과학과 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가 바라보는 사회과학의 법칙이

2) SNS. P. 4.

3) M. Merleau-Ponty는 Sartre에게서 초기 훗설 (Ideen 1)을 소개받은 후 1939년 루벵대 훗설연구소를 방문하고 그의 유고 특히 「Crisis」를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후기훗설에 대한 그의 해석은 지나치게 훗설을 실존주의화시킴으로써 훗설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Madison, Gay B., *The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ohio ; ohio univ, 1981), PP. 267~290.

란 완벽한 진리의 구현으로서 보편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합 의 속에서 보다 높은 합리성의 상태를 모색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를 늘 허용하는 잠정적인 성격을 띤다. Merleau-Ponty는 실존적 현상학을 끊임없이 시작하는 철학, 질문의 과정으로 보고 그것은 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철학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sup>4)</sup>

Merleau-Ponty는 이러한 실존적 현상학이 초기헤겔의 실존주의와 후기훗설의 현상학이 결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Merleau-Ponty는 초기헤겔의 철학을 계속되는 모순 속에서 그것과 대결을 행하는 역사의 주체이자 객체인 자아의 자기실현과정으로 보고, 이것을 후기헤겔 — 프러시아국가에서 궁극적인 합일을 모색하는 절대지의 소유자로서 헤겔 — 과 구별하였다. 반면 훗설은 초기에 과학의 위기로 부터 제1철학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엄밀한 學 (rigorous science)으로서 현상학을 시도하였으나, 그후 그가 도달한 결론은 완전한 현상학적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세계는 발생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형적 주관 (transcendental subjectivity)은 상호주관 (inter subjectivity)이다’라는 명제에 도달한다.<sup>5)</sup> 다시말하면, 훗설의 현상학은 초기의 선형적 현상학 (transcendental phenomenology)으로부터 후기의 발생적 현상학 (genetic phenomenology)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Merleau-ponty는 이것을 훗설현상학이 反 헤겔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 역사의 인식을 통하여 헤겔철학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6)</sup>

Merleau-Ponty는 의식과 세계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을 지각 이론에서부터 모색하였다. 그는 “20 C는 정신과 육체의 경계선을 소멸시켰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육체가 지각과정을 통하여 단순한 수동체를 넘어서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Gestalt

4) S. P. 133.

5) SNS. P. 134. Merleau-Ponty는 이러한 훗설의 변화를 Cartesian Meditations (1929)로부터 본다. Merleau-Ponty, Themes from *the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trans. J. O'Neill (Evanston ; Northwestern univ, 1970 ). P. 106.

6) Ibid, P. 135.

7) S. P. 226.

심리학의 도움에 힘입어 지각과정에서 외부의 대상과 신체기관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넘어서는 전체로서의 구조와 형태가 지각주체에 의해 파악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의 육체가 단순한 생리적 기능 외에 의식의 기능까지 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신체적 주체 (body-subject) 론을<sup>8)</sup> 주장하였다. 신체적 주체론에 의하면 지각의 세계는 주관과 객관, 의식과 대상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혼재의 장으로 이곳에 있어서 의미의 생성은 신체를 매개로 지각주체가 타인,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각체험의 상호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상호주관성의 영역 속에서 개별자의 자유의지와 침전된 (sedimented) 세계가 동시에 작용한다. Merleau-Ponty는 작용하는 지향성 (operative intentionality) 이라는 개념으로써<sup>9)</sup> 인간이 세계 속의 존재임을 설명하였다.

Merleau-Ponty는 지각이론을 통해 객관주의 심리학과 칸트적인 선형철학을 화해시키는 새로운 철학의 통로를 모색한 후 이것을 역사인식에 적용시켜 역사를 법칙과 자유의지, 필연과 우연, 의미와 무의미가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0)</sup> 역사에는 최소한의 의미와 방향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많은 여백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에는 대양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는 진리와 최선만을 구현시키지 않으며 놓쳐버린 많은 기회들이 존재한다.<sup>11)</sup> 여기서 Merleau-Ponty는 합리주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비합리·무의미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합리성의 개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헤겔은 비합리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이성의 간지로 해결하려함으로써 합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sup>12)</sup> 비합리와 우연의 영역을 그 자체

8) Merleau-Ponty의 입장을 요약해주는 이 표현은 R. Kwant (1963)의 조어이다. Merleau-Ponty 자신은 body as the subject of perception 혹은 body as a natural subject 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Sonia Kruk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erleau-ponty*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1) P. 23.

9)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smith (London; R. K. P., 1962), P. XViii Merleau-ponty는 칸트의 지향성이 단순한 주관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반면 훗설의 지향성은 상호주관성의 차원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작용하는” 지향성이라 부름으로써 전자와 구별하였다. 이하 PP로 약한다.

10) Merleau-Ponty는 도처에서 역사의 성격을 Continnency 라고 표현한다. 이때 이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S. P. 239.

11) SNS. P. 105.

12) Ibid., P. 63.

로 인정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최소한의 역사의 의미와 방향에 기초하여 세계 속에 뛰어들어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와 합리성을 구축해 나갈 때 결정론 뿐 아니라 단순한 투기, 모험과도 구별되어진다. Spiegelberg는 Merleau-Ponty의 입장이 ‘현실적인 것은 부분적으로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것은 부분적으로 현실적’ 이라고 보는데 있다고 말한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자 또한 객체라는 이중성에서 기인한다. 역사의 객체로서 인간은 주어진 객관적 상황속에 존재하게 되나 인간은 또한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기투 (Project) 에 의해 역사를 변형시켜 나간다. 인간의 이러한 두 측면이 결합될 때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의 분석과 철학의 실천은 상호보완적인 것이 된다. 세계를 안다는 것과 변혁시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Merleau-Ponty는 주어진 여건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과정을 실존 (ex-ist) 의 문제로 본다.<sup>14)</sup> 그의 역사철학은 도그마와 회의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끊임없는 자기수정의 과정을 강조한다. 오류의 가능성을 인간의 속성으로 보는 그는 역사의 전개를 진리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오류의 제거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Merleau-Ponty는 이러한 실존적 현상학의 역사철학을 환상을 제거한 낙관주의라고 말하고 있다.<sup>15)</sup>

Merleau-Ponty는 실존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을 의식과 세계에 관한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역사철학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를 특정계급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존재양식이라는 일반적 실존의 범주에서 파악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에 의해 왜곡되어진 삶의 형태로서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를 초월하려고 한다. 즉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실현을 기도한다. 그것은 의식과 세계를 동시에 구현시키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율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와 연루되어진 의식으로서 역사의 주체이자 객체인 것이다. Merleau-Ponty는

13) 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 A historical introduction*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82), P. 543.

14) SNS. P. 128.

15) S. P. 240.

계급을 분석함에 있어서 계급은 경제적 삶의 배경이라는 객관적 여건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각까지를 요구한다고 말한다.<sup>16)</sup>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질과 이에 따른 변증법의 소멸이 프롤레타리아를 의식이나 사실 어느 한쪽으로만 파악하여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객관주의적 해석은 프롤레타리아를 세계의 일부로만, 즉 하나의 물질로만 간주함으로써, 그것의 자율적 능력을 간과하고 당에 의한 통제를 능사로 삼는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관주의적 해석은 프롤레타리아를 의식의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그것을 관념적 실체로 만들고 현실적인 구현을 당의 순수의지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의식이자 사실이며 그들은 실제의 삶을 통하여 문제를 자각한다. 그들의 프락시스는 주어진 사실을 극복하려는 의식의 노력이며 의식과 사실 양자는 동시에 작용한다. 당은 이론적인 명료화를 통하여 그들의 프락시스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높여줄 뿐이다.

따라서 Merleau-Ponty가 당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를 마르크스주의의 논의의 초점으로 삼을 때, 그것은 의식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철학의 근본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철학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참되게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보았다.<sup>17)</sup>

Merleau-Ponty는 실존적 현상학을 최종적으로 휴머니즘 또는 철학적 인간학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려 하였다.<sup>18)</sup> 전통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함으로써 그가 성취하려고 한 것은 객체화된 세계 속에서 소외된 인간을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여기서 그는 '뿌리는 인간이다'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상기시킨다.<sup>19)</sup> 그는 과학과 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피직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을 인간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16) PP. P. 444.

17) AD. P. 45. Archimedes'point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18) J. Wild와 J. M. Edie는 Merleau-Ponty가 델타이의 꿈과 현실의 Crisis를 해결해주는 humanistic disciplines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M. Merleau-Ponty, In praise of philosophy, trans.

J. Wild & J.M. Edie. (Evanston: Northwestern Univ, 1963), P. XXii

19) SNS, P. 125.

그는 인간의 전능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세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건에 의한 한계를 소유하며 또한 불확실성과 오류는 인간에게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긍정적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진리에 접근하고 있는 몽테뉴의 회의에 공감하였다.<sup>20)</sup> 그러나 그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의 철학의 기초로 삼는다. 인간에 의해 인간이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는 이미 약속받은 것이 아니며 투쟁의 산물임을 Merleau-Ponty는 강조한다. 그는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프롤레타리아의 자기회복의 노력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는 이것을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마키아벨리적인 덕성 (Virtu)에 비유하기도 한다.<sup>21)</sup> 그리하여 Merleau-Ponty는 “우리시대의 영웅은 인간 그 자신이다”고 말하고 있다.<sup>22)</sup>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Merleau-Ponty의 현상학적 해석은 루카치를 논의하는 데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다음에 루카치의 서구마르크스주의에 관한 Merleau-Ponty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통속적 유물론 비판

Merleau-Ponty는 엥겔스 이후의 경제적 결정론에 근거한 이른바 정통적 (orthodox)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통속적 (vulgar) 해석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서구철학의 전통속에서 의식의 관점으로 부터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는 입장을 서구마르크스주의 (Western Marxism)라 부르며 이것을 통속적 입장과 구별되는 진정한 (authentic) 해석으로 보았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서구마르크스주의,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루카치의 초기저작에서 비롯된다.<sup>1)</sup> 그리고 루카치는 베버가

20) S. P. 198.

21) Ibid. PP. 217~219.

22) SNS. P. 186.

1) AD. P. 31 「역사와 계급의식」을 가르킨다.



밝혀준 자본주의 역사에 근거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 관한 베버의 설명은 자본주의 정신으로 집약된다. Merleau-Ponty는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시한다.

첫째, 베버는 선택적 친화력 (elective affinity)의 개념을 통하여 역사를 어느 한 요소로 환원시킴 없이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했다.<sup>2)</sup>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이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해주는 법과 조직, 합리적인 생활양식 등 이른바 상부구조의 제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망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말한다.<sup>3)</sup> 자본주의 씨앗이 역사상 산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주의의 합리화정신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초기 켈비니즘의 현세적 금욕주의 (worldly asceticism)가 이곳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sup>4)</sup> 16, 17 C의 초기 켈비니즘은 신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무력감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현실세계 속에서 근면과 검약을 통하여 부를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것이 신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 정신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가져다 주는 자본주의 노동윤리와 결합하였다고 베버는 본다.

둘째로, 베버는 역사의 이해를 끊임없는 의미의 모색 과정으로 파악하여 완결된 絕對知나 카테고리화를 거부하고 그것의 잠정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역사의 전개는 완전한 진리를 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계속되는 오류의 제거과정을 통하여 진리에 끊임없이 접근한다.<sup>5)</sup>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관의 객관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만 즉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초기금욕주의를 벗어나면서 탐욕과 자만으로 윤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신적 쇠퇴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한다.<sup>6)</sup>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는 화석화된 사회이며 영혼없는 전문가, 예정없는 관능주의의 세계이다.<sup>7)</sup> 여기서 베버는 자본

2) Ibid., P. 18.

3) Ibid., P. 17.

4) Ibid., P. 13.

5) Ibid., P. 9.

6) Ibid., P. 15.

7) Ibid., P. 23.

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였고 자본주의의 합리화정신이 여전히 교정되어야 할 오류의 여지를 남긴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베버를 가리켜 ‘한계를 자인할 줄 아는 영웅적인 (heroic) 자유주의자’라고 말하고,<sup>8)</sup> 그의 입장을 역사에 대한 다면적 접근과 창조적 선택의 정신으로 요약한다.<sup>9)</sup>

Merleau-Ponty는 이러한 베버적 입장이 초기 루카치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말한다. 루카치는 베버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후계단계를 物化 (reification)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으로 전환되는지를 밝힌다. 루카치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과정 속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객체화된 인간이며 그것은 자기회복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의식을 소유하는 객체이며 정치경제학의 법칙에 대하여 도전한다. 그것은 자신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상품이다.<sup>10)</sup> 부르주아는 계급사회를 타파하였는데 성공하였으나 부분적인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었고 완전히 동질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 반면 소외된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는 보편적 계급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계급을 부정함으로써 즉 계급 투쟁을 통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역사는 프롤레타리아와 더불어 자기의식을 소유하게 되고<sup>11)</sup> 혁명의 과정속에서 주체와 객체는 통일되며, 마침내 프롤레타리아는 자기회복의 숭고한 순간을 맛보게 된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루카치의 프롤레타리아론은 몇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

첫째,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을 엥겔스 이후의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에서처럼 헤겔식 관념론에 대한 단순한 대립만으로 보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역사를 경제로 환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역사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관계를 조명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8) Ibid., P. 26.

9) Ibid., P. 29.

10) Ibid., P. 44.

11) Ibid., P. 46.

마르크스가 철학을 부정한 것은 추상적인 개념세계에서 벗어나 그것을 현실에서 위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sup>12)</sup>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경제의 중요성은 의식의 자율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루카치는 마르크스가 관념론 뿐 아니라 단순한 유물론과도 투쟁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론을 통하여 사물에 의한 반영으로서 의식의 이데올로기성 외에 의식의 자율적 영역이 존재함을 밝히려 하였다. 루카치는 Balzac 을 논하는 가운데서 그가 부르주아 세계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다른 작가보다 더 혁명적일 수 있었음을 예로 들고 허위의식 (false consciousness) 과 의식의 허위성 (falsity of consciousness) 을 구별하였다.<sup>13)</sup> 의식은 계급적인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실을 내포한다. 프롤레타리아 밖에도 진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오는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다. 의식속에서 자율과 종속, 진실과 허위가 존재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루카치는 소련의 문학을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socialist realism) 에 대항하여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였다.<sup>15)</sup> 한마디로 루카치는 경제를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며 의식을 제거해 버린 마르크스주의는 더이상 마르크스주의일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Merleau-Ponty 는 이와같은 루카치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발레리의 시를 경제적 상황의 에피소드로만 볼 수 있는가?”<sup>16)</sup> 라고 묻고 “역사는 머리로 견지 않지만 발도 생각지도 않는다” 라고 자답한다.<sup>17)</sup> Merleau-Ponty 에 의하면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는 의식의 제거와 더불어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의 척도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편의물이 역사법칙의 장악자로서 당이라고 그는 보았다.

둘째로, 루카치는 의식의 자율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마르크스의 프락시스를 끊임없는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파악하고 혁명을 객관적 법칙으로 설명하는

12) SNS. P. 133.

13) AD. P. 42.

14) Ibid.

15) Ibid., P. 71. 그러나 루카치는 1949년 “대체적으로 소련문학이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굴복하였다.

16) PP. P. 172.

17) PP. P. xix.

종래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반대하였다. 그는 역사의 객관적 법칙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문제제기를 회피하는 자본주의적 은폐의 논리라고 비판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루카치는 역사의 객관적 법칙, 말하자면 진보 (progress)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파헤치며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으로 재해석할 것을 주장한다. 루카치는 현실을 존재가 아니라 생성으로 파악했으며 따라서 역사발전은 본질적으로 경향 이상의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보았다. 역사의 전개는 예정된 에센스의 실현이 아니라 주어진 객관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며 프락시스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를 뿐이고 승리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다. 프락시스는 최소한 존재하는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인간의 노력이며 가능성에의 기대이다. 따라서 루카치는 프락시스를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의지가 교차되는 영역으로 보았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루카치가 마르크스의 진면목을 파악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sup>19)</sup>

Merleau-Ponty는 루카치가 밝힌 프락시스의 관점에서 1917년 러시아혁명을 해석한다.<sup>20)</sup> 러시아혁명은 객관적 논리에 의해 예정된 것도 혹은 혁명이 집단의 투쟁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외국자본의 강요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중이던 반식민지상태의 러시아정부와 중산계층의 미약한 존재, 농촌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과격성과 혁명 지도층의 노력,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혁명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필연과 우연의 결합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결코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다.<sup>21)</sup>

루카치에 의하면 프락시스는 혁명 이후의 사회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비판으로 수행된다. 마르크스가 스스로 혁명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임을 지적했듯이 사적 유물론의 정수는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있다.<sup>22)</sup> 혁명은 절대화되어서는 안되며 끊임없는 자기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 가능성 (objective possibility)으로서 루카

18) AD. P. 35.

19) Ibid., P. 47.

20) SNS. P. 120.

21) HT. P. 131.

22) AD. P. 53.

치의 프락시스론은 상대성을 통하여 진리에 접근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를 진리의 생성과정, 끊임없는 질문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의 일반적 분위기 (Stimmung)는 진리의 문턱을 강조하고 있다고 Merleau-Ponty는 말한다.<sup>23)</sup> 다시 말하면 역사는 서로의 합의에 기초하여 오류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누구도 결코 궁극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의 자율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당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Merleau-Pont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역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고 있다. 그들의 상황인식은 저급한 수준이며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의 삶을 명료하게 정립해 주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 줄 이론가 집단으로서 당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러나 당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는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군대조직과도 다르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이며 상호적인 관계이다.<sup>24)</sup>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이 절대적 진리를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중의 신화는 기각되어야 하지만 또한 당의 전능도 부정되어야 한다.<sup>25)</sup> 당의 이론이 아무리 잘 정립되어도 대중이 거부하면 성립될 수 없으며 최종적인 타당성 여부는 노동자가 당의 정치에 진리의 봉인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sup>26)</sup>

Merleau-Ponty는 이러한 루카치의 입장이 레닌을 대표로 하는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와 대립된다고 본다. 엥겔스 이후 마르크스주의 해석은 사회를 제 2의 자연으로 보고 의식주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통을 수립하였다.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론 비판」은 이러한 입장을 인식론적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사고를 두뇌에 의한 외계의 반영으로 보고 변증법은 물질속에서만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이

23) Ibid.

24) AD., P. 50.

25) Ibid., P. 50.

26) Ibid., P. 52.

27) Merleau-Ponty는 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시각에서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흐름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레닌은 Voluntarism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입각하였으므로 정통적 (orthodox) 마르크스주의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G.Lichtheim, op.cit., P.95참조

자본주의에 오염됨으로써 노동조합 수준 이상의 것으로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았다.<sup>28)</sup> 따라서 그는 진정한 프락시스를 프롤레타리아 계급 밖에 있는 당에서 기대하였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레닌의 견해는 유물론에 변증법의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변증법을 미이라화 시키고 있다.<sup>29)</sup> 그것은 의식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를 외면함으로써 마르크스 주의를 자기비판의 의무에서 면제시키고 실증주의 도그마에 빠뜨리고 있다.<sup>30)</sup>

Merleau-Ponty는 당의 의지로 집약되는 레닌의 Voluntarism이 결국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sup>31)</sup> 그것은 당에 의한 역사의 절대적 진리포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급의식의 자율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당은 의식을 물질과 동일시 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만을 문제삼음으로써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프락시스로서 인간의 행위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역사의 메카니즘을 통제하는 단순한 기술 (technique)로 전락하게 된다.<sup>32)</sup> 물론 Merleau-Ponty는 레닌의 의도가 서구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후진국에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실증과학과 다를 바 없는 통속적 유물론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Merleau-Ponty는 보았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도그마적 특성은 특히 트로츠키의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Merleau-Ponty는 레닌의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어떤 의미에서 트로츠키에 의해 실제정치에 적용되었다고 본다.

트로츠키는 다원주의를 변증법의 본질로 생각하였다.<sup>34)</sup> 따라서 그는 스탈린의 등장과 관료제화 경향을 일시적인 이탈현상으로 간주하고 역사의 자발적인 회복을 믿었다. 1926년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가 스탈린과 투쟁하기 위해 트로츠키에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스탈린주의가 역사의 필연이며 여기

28) Ibid., P. xxi

29) AD. P. 65.

30) Ibid., P. 60.

31) Ibid., P. 86.

32) Ibid., P. 86.

33) Ibid., P. 61.

34) AD. P. 74.

에 대항하는 것은 전혀 무모한 일임을 강조하고 끈기를 갖고 때를 기다릴 것을 충고하였다.<sup>35)</sup> 그는 스탈린주의에 접어든 혁명의 퇴조가 혁명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며 곧 대중이 지배하는 참된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트로츠키는 추방된 후에도 스탈린에는 반대했으나 소련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며 제 4 인터내셔널에서 자신의 환상을 만족시켰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트로츠키는 역사를 구조적 필연성에 입각하여 낙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일시적 타락으로 보고 변함없는 당에의 신뢰와 승리를 예견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 Merleau-Ponty는 이러한 의미에서 트로츠키의 입장을 ‘볼셰비즘 밖의 볼셰비즘 (bolshevism outside of bolshevism)’ 이라고 부른다.<sup>36)</sup> 한마디로 트로츠키는 객관적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에 따라 스탈린에 굴복하였다고 Merleau-Ponty는 해석하였다.

루카치는 초기에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였으나 후기에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레닌의 철학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진보였다.”고 말하였다.<sup>37)</sup> Merleau-Ponty는 이와같은 루카치의 전향을 다음과 같이 본다. 즉 루카치는 스스로 시인했듯이 너무 계시적 (apocalyptic) 이었다는 것, 그는 혁명이 하부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장기적 과정임을 망각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즉각적인 출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성급한 낙관론에 빠졌다는 것, 이러한 낙관론은 현실적으로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sup>38)</sup> 다시 말하면 Merleau-Ponty는 루카치의 전향을 극단적 주관주의 - 하부구조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주관주의 - 가 낳은 결과라고 본 것이다.<sup>39)</sup> 다음에 극단적 주관주의의 문제점을 Sartre와 관련시켜 알아본다.

35) HT. PP. 76~77.

36) AD. P. 88., 따라서 Merleau-Ponty는 트로츠키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 없다고 본다. 단 Merleau-Ponty는 트로츠키의 이러한 입장을 후기 트로츠키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들의 모랄과 우리의 모랄」을 쓸 당시 트로츠키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AD. PP. 76~77.

37) AD. P. 66. 「청년 헤겔」(1948)의 한 구절이다.

38) Ibid

39) Ibid., P. 64.

## 4. 주관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본래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통속적유물론의 비판을 제 1의적인 것으로 삼았다. 그것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경제결정론 일변도의 경향에서 벗어난 의식이 문제를 부활시킴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지스탕스의 경험을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파악하였으며 해방의 저력을 통해 서구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1938년 모스크바재판 이후 강제 수용소, 베를린봉쇄에 이르기까지 날로 경직화되고 있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회의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를 일변케 하였다.<sup>1)</sup> 한국전쟁은 소련의 음모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소련은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있음을 그는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탈린주의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이상을 구현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극단적으로 객관주의화된 변형으로서의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향기만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며 역사의 주체인 인간을 수단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Merleau-Ponty는 한국전쟁 이후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침묵 뿐이라 믿고 정치적 논평을 일체 삼가며 사실상 「현대」지에서 손을 떼었다.<sup>2)</sup> 한편 Sartre는 자신이 회고하듯 Merleau-Ponty의 정치적 식견이 탁월함을 인정하고 「현대」지의 정치적 이슈에 관한한 그에 대한 동의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하자 그는 Merleau-Ponty와 달리 그것을 제국주의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였다.<sup>3)</sup> 그는 뒤늦게 공산주의에 공감하며 Merleau-Ponty가 사실상 물러난 「현대」지를 그의 말을 빌면 선장없이 항해시키기 시작하였다. Merleau-Ponty가 이 당시 느낀 공포가 스탈린주의였다면 Sartre가 느끼기 시작한 공포는 자본주의의 음모였다.<sup>4)</sup> 이제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1) 모스크바재판 이후 Merleau-Ponty는 소련에서 진행중인 혁명의 과정에 대하여 회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는 지켜보는 태도(Wait & See)를 취하였다.

Sartre, op. cit., P. 167. SNS. P. 171.

2) Sartre, op. cit., P. 89.

3) Ibid., P. 191.

4) D. Archard, *Marxism and Existentialism*(Belfast; Blockstaff press, 1980). P. 72.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Duclos 사건<sup>5)</sup>이 일어났을 때 Sartre는 극히 분개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공산당 주도의 데몬스트레이션의 실패로 Sartre는 곧 「Communist and Peace」를 발표하고 이제 확실해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감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공산주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제한된 주제를 다루겠다고 시작했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프랑공산당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이를 거부하는 트로츠키파에 비판을 행하였다.<sup>6)</sup>

편집상의 문제로 Sartre와 결별한 Merleau-Ponty는 이 시기에 마르크스 저작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하나는 왜 마르크스주의가 실제에 있어서 스탈린주의로 귀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sup>7)</sup> 다른 하나는 유물론을 거부하는 Sartre 철학이 어떻게 스탈린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극단화될 경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의식의 절대성은 객관적인 역사법칙 그 자체로 전환됨으로써 양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Merleau-Ponty는 Sartre에게서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새로운 병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서구마르크스주의가 빠지기 쉬운 극단적 주관주의 해석에 경종을 울리려고 하였다.

Sartre에 의하면 세계는 서로 침투가 불가능한 卽者 (Being-in-itself)와 對者 (Being-for-itself), 즉 물질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5) Duclos 사건이란 1952년 새로 부임해 오는 Ridgeway 나토 사령관취임에 대하여 프랑공산당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킬 때 주동자의 한 사람이던 공산당 소속 위원 Duclos를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것을 말한다.

6) AD. 97. 그러나 Sartre는 후일 특히 헝가리사태 이후 「스탈린의 명령」, 「변증법적 이성비판」 등에서 경직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함으로써 「Communist & Peace」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변경시켰다. 여기에서 Ponty의 비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Pratico-inert론을 통해 철학자체를 보완하였다. Archard, op. cit., P. 91.

M. Poster, Existential Marxism in Post War France (N. J.; Princeton univ., 1975), P. 178.

7) 이에 대해 그는 스탈린주의에 도달한 극단적인 객관주의의 근원이 마르크스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실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이론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AD. P. 62 이 점은 그의 마르크스주의로 부터의 이탈과 관련되며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모든 즉자상태는 혐오와 파괴의 대상이며 그것은 의식의 절대성에 의해 극복  
해져야만 한다.<sup>8)</sup> 즉 의식은 부정을 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Merleau-  
Ponty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Sartre는 의식에 전능한 부정  
의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부정에 성공함과 동시에 즉자의 위치를 차지하  
게 만들고 있다. 의식은 부정의 부정에 실패하고 사실상 대자에서 즉자로 발  
전되고 있는 것이다.<sup>9)</sup>

Merleau-Ponty는 Sartre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건강한 (heal-  
thy) 것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가치만으로 그  
것을 신격화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sup>10)</sup> Merleau-Ponty는 의식과 물질간의  
관계가 단순한 부정에 의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 놓  
여있다고 말하고 Sartre의 변증법의 실패는 의식을 순수한 코기토 (cogi-  
to)의 영역에서만 모색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Sartre는 물질에 의해 매개되는 의식과 세계의 결합을 무시하여 역사의  
문제를 개인적 자유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Merleau-Ponty에  
의하면 나의 사고와 감각은 이미 타인과의 관계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의미의 집합 속에 붙들려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제공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나감으로써만  
가능하다.<sup>12)</sup> 절대적 자유에 의한 역사의 설명은 마음만 먹으면 독재정치도 금  
방 무정부주의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는 이러  
한 논리를 계급의식의 분석에도 적용시킨다. 세계내 존재양식으로는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고 행위자의 선택과 결단만으로 계급의식이 가능할 수는 없다  
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갖는 한계이다.<sup>13)</sup>

Merleau-Ponty는 1952년 공산당 지지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Comm-

8) AD. P. 138, P. 141, P. 155, P. 193.

9) Ibid., P. 169

10) Ibid., P. 182

11) Ibid., PP. 183~194.

12) Ibid., P. 197

13) Ibid., P. 447

unist and Peace」와 「A Reply to Clande Lefort」<sup>14)</sup>를 그의 초기철학 즉 「존재와 무」의 도식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Sartre가 당과 프롤레타리아에 관해 펼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artre는 마르크스주의의 프락시스의 의미를 사실을 초월하는 의식의 절대적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적인 사랑과 실제 사랑과의 차이는 없다. 주체라하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이며 정의상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참된 정치는 항상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혁명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Sartre는 말한다.<sup>15)</sup> Sartre가 설명하는 프락시스는 의식이 이룰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Sartre는 헤겔의 말을 수정하여 “모든 실재하는 것은 프락시시이며 모든 프락시스는 실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6)</sup> 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내 자신이며 그것의 의미는 백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Sartre는 혁명을 원한다면 의식의 변혁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결정론의 논리에 속하는 것으로 배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타인이나 세계는 구역질나는 것, 파괴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의식을 역사로부터 절연시키고 사물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Sartre가 취하는 전제라고 본다. 이러한 전제하에 Sartre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sup>17)</sup>

오늘날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 의사와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을 기대하지만 그 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며 정치적 행동의 능력도 없다. 그들이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당이 필요로 하는 것 보다 항상 한발 앞서거나 뒤늦고 있다. 이러한 네오프롤레타리아 (Neoproletariat)는 역사를 포착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 대중사회의 속성이기도 하다. 숙련노동자로서 재능과 인정받는 가치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14) C.Lefort는 「현대」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당에 의한 독재를 거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Sartre의 「Communist and Peace」를 비판한데 대한 Sartre 응답이 「A Reply to C.Lefort」(1953)이다. 두 글 모두 「현대」지에 게재되었다.

15) AD, P. 132

16) Ibid.

17) Ibid., PP. 118~119.

있다. 부르조아가 공통의 이익으로 단합되어가는 반면 프롤레타리아는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르조아와 부분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의식과 힘을 상실한 네오프롤레타리아로 어떻게 혁명을 수행하겠는가? 당이 주도하는 운동의 빈번한 실패와 여기서 보여진 노동자의 무관심에 대한 Sartre의 해석이다. “Sartre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 Sartre를 읽으면 혁명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라고 Merleau-Ponty는 말한다.<sup>18)</sup> 그러나 Sartre는 무능력해진 혁명주체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곧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黨이다. 인간은 만들어져야 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 당은 프롤레타리아를 새로 창조해낸다. 프롤레타리아란 만들어지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당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며 당은 프롤레타리아의 존립근거가 된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당이 소유하는 명철성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당의 정당성은 선출이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존립근거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당의 존재는 프롤레타리아의 신뢰 혹은 그들간의 의사표출과 무관하며 무에서부터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창조해내기 위한 논리적 존재라고 Sartre는 말한다.<sup>19)</sup> 따라서 당과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동일성의 원칙이 성립된다. 프롤레타리아가 당 속에 있고 당이 프롤레타리아 속에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행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의 행동이고 당이 행동하기를 멈출 때 프롤레타리아는 소멸되어진다. 따라서 당의 의사에 분열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곧 프롤레타리아의 의사인 한 단 하나의 당만이 존재하며 그 내부에 분열이란 있을 수 없다. 계급없이 당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당이 없으면 노동계급은 먼지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당으로 넘쳐 흘러가는 물결은 당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판단의 척도는 당 자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Sartre는 말한다.<sup>20)</sup> 당이야말로 Sartre의 자유인 것이다.

앞에서 논한 Sartre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대하여 Merleau-Ponty는 “여기서 우리는 최초로 과거의 정통적인 입장에 호소함이 없이 커뮤니즘을

---

18) Ibid., P. 167.

19) Ibid., P. 109.

20) Ibid., P. 111.

정당화시키는 시도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Sartre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에는 변증법이 사멸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의하여 커뮤니즘을 이해하여 보겠다고 말했다.<sup>21)</sup> Merleau-Ponty에 의하면 Sartre의 원칙은 커뮤니즘의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후기 루카치가 변증법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를 제2의 자연으로 귀환시키고 있는 반면 Sartre는 역사를 직접적인 의지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객관주의와 극단적 주관주의는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다. 즉, 만일 사회가 제2의 자연이라면 필요한 것은 일종의 정치공학으로서의 기술 뿐이며 만일 사회가 의지만의 결과라면 순수한 창조로서의 질서 뿐이다. 양자 모두 당의 행위에 대한 척도를 상실함으로써 테러적이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sup>22)</sup> Merleau-Ponty는 커뮤니스트에 의해 비밀히 이루어진 변증법의 파괴가 Sartre에 와서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한다.<sup>23)</sup> 그는 또한 Sartre가 커뮤니스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함 없이 자기의 철학속으로 그것을 끌어넣으려 하고 있으며, Sartre의 분석을 따르자면 논의는 커뮤니즘에 대한 절대적 정당화로 귀결되어지고 있다고 말한다.<sup>24)</sup> 왜냐하면 커뮤니즘의 행위는 평가의 척도가 부재함으로써 무에서부터의 사회건설과 다름이 없게 되며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도 인정 않는 영웅적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Sartre가 존재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개념에 의거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의미를 순수한 창조로 간주할 때 이것은 초월이 아니라 비약이라고 Merleau-Ponty는 말한다. Sartre는 현실을 외면하고 당위의 시각에서 관념적으로만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커뮤니즘과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여 당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토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Sartre의 마르크스주의를 Merleau-Ponty는 Ultrabolshevism<sup>25)</sup> 이라고 부르고 있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자기비판이야말로 변증법의 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해석에 입각한

21) Ibid., P. 97.

22) Ibid., P. 98.

23) Ibid.

24) AD., P. 100.

25) Ibid., P. 164.

커뮤니즘이나 Sartre 식의 주관주의적 해석이 모두 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Sartre의 당에 대한 집착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과소평가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Merleau-Ponty는 Sartre가 의식을 사실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놓음으로써 프롤레타리아를 관념적으로만 취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삶의 산물이며 역사의 객관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Sartre는 이것을 단순히 사고의 대상으로, 세계와의 정신적 결합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는 생산과정 속에 근거하여 존재하게 되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비참한 자의 시선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sup>26)</sup>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힘과 뿌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Sartre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이다.<sup>27)</sup> 빈곤이 언제나 혁명을 유발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Sartre로 하여금 빈곤과 혁명을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노동자가 삶을 통해 체험하는 객관적 조건을 간과하기에 이른 것으로 Merleau-Ponty는 보고 있다.<sup>28)</sup> 프롤레타리아가 관념적 실체가 됨으로써 그는 프롤레타리아에 실망했을 때 논리만으로 쉽게 그것을 소멸시키고 대용물을 다시 모색할 수 있었다. 역사는 순수의식의 산물이고 당은 자본주의 세계의 사실성을 파괴하기 위한 절대적 자유라고 주장하는 데서 프롤레타리아로부터 당으로의 역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Merleau-Ponty는 이것을 루카치 이후의 서구마르크스주의와 지식인의 정치참여가 빠지기 쉬운 오류라고 생각한다. 참된의미의 행동은 의도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당의 의사는 역사의 실체로써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참여와 비판을 허용할 때 참다운 행동이 되며 순수행위의 공상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세계변혁은 가능해 진다고 Merleau-Ponty는 말한다.

Sartre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실패가 의식의 순수성을 고집함으로써 역사를 설명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 Merleau-Ponty는 두개의 영역을 매개해줄 제도 (institution)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sup>29)</sup> 제도라는 것은

26) Ibid., P. 154.

27) Ibid., P. 169.

28) Ibid., P. 106.

29) Merleau-Ponty, 「Themes from the Lectures at the collége de France」.  
trans. J. O'Neill (Evanston; Northwestern univ, 1970). PP. 40~41.

사회현상에 일관성을 견지하게 해주는 암묵적 합의로서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진 객관적의미를 말한다. 그것은 지속적인 차원을 확보해주는 의미와 경험의 축적이며 사회적 행위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맥락이 된다. 그것은 의식과 사실의 복합으로서 사회현상을 지칭하며 여기서 개인적 자유와 객관적 역사는 동시에 구현되어진다. Merleau-Ponty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제 2의 자연으로서 사회」의 의미를 이러한 제도의 관념으로 파악한다. 즉 그것은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것이나 사회현상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전통, 습관, 규범등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을 인정함으로써만 Sartre식의 절대적 자유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본다. Merleau-Ponty는 제도의 개념을 통하여 상호주관성이라는 현상학의 기본원리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 하였다. 즉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역사법칙을 상호주관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청년마르크스와 1923년의 서구마르크스주의는 하부구조의 貫性을 표현할 적절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역사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특수한 영역 즉, 제도를 이해해야만 한다. 제도는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율과는 다르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물의 질서이며 자연법칙을 향하는 역사의 하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 열려져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속에서 출구를 발견해야 한다.”<sup>30)</sup>

## 5. 맺 는 말

Merleau-Ponty는 서구합리주의 철학이 역사를 의식이나 물질 어느 한편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였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실존적 현상학을 통하여 의식과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의 진수를 루카치의 프롤레타리아론에서 모색하였고 이것을

30) AD. P. 64~65.

실존적 현상학의 논리로서 해석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객관적 상황의 산물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주관적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엥겔스와 레닌에 의해 정립된 객관주의적 마르크스주의만을 문제삼아 오던 Merleau-Ponty는 Sartre가 유물론을 비판하면서도 스탈린주의에 동조하게 되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극단적 주관주의적 해석의 새로운 병폐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당을 절대화함으로써 객관주의적 해석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Sartre는 의식만을 문제삼음으로써 노동자가 혁명의 힘을 상실한 오늘 프락시스의 주체는 당이라 말하고 당이 프롤레타리아를 새롭게 창조해내며 그것의 존립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여 당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였다. Merleau-Ponty는 이것을 루카치 이후 서구마르크스주의가 빠지기 쉬운 오류라고 보았다.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를 의식과 사실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역사철학으로 해석하였으며 마르크스가 사회를 제2의 자연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이러한 의식과 사실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Merleau-Ponty는 서구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공산당의 단순한 투쟁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erleau-Ponty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도그마적 해석을 거부함으로써 1960년대 후반의 New left 운동과 1970년대의 유로코뮤니즘의 선구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sup> 그러나 그는 혁명의 프롤레고메나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적 의미보다 철학적 이원론의 극복이라는 존재론 일반의 시각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 함으로써 혁명의 열기를 희석시키고 그것을 고도로 추상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난받기도 한다.<sup>2)</sup>

이 글은 Merleau-Ponty의 서구마르크스주의 해석을 그의 전향 이전의 입장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탈과 혁명을 부정하는 그의 noncommunist left론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였다.

1) Barry Cooper, Merleau-Ponty and Marxism (Toronto: Toronto Univ Press, 1979) P. 168.

2) Sonia Kruk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erleau-Ponty」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1). P. 57.